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유일한 재판관

(약 4:11-12)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일, 형제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리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약 4:11).

서로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해서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2).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율법을 따라 판단하실 분, 곧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안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 정죄와 비판을 일삼고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을 심판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방과 비판, 판단과 정죄의 언어 대신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골 4:6).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맛깔 나는, 은혜로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변화의 무한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입에 말에도 비록 상대적이지만 여전히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은 악독과 화내는 것과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One and Only Judge

(James 4:11-12)

We slander one another and judge brothers on our own terms without any unpleasantness. Moreover, we do not think that such things are very serious sins. However, the Bible handles such sins in a very serious way.

The text explains the reason why we do not have to do such things.

“Brothers and sisters, do not slander one another. Anyone who speaks against a brother or sister or judges them speaks against the law and judges it. When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keeping it, but sitting in judgment on it” (James 4:11).

The fact that we slander and judge one another indicates that we slander God’s holy word, his law, and judge the law. There is another reason why we must not slander and judge is that we are not keeping the law, but sitting in judgment on it.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But you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James 4:12).

It is God who has made the law, judges according to the law, and sits on judgment on it. The judgment of human beings is God’s unique authority. And there, we often condemn the other side, thereby we violate God’s unique authority.

There is no one who is perfect among us. We are the existence which is stupid. That’s why we never climb up to the place to judge or condemn others and sit there instead of God.

“You, then,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Rome 14:10).

Paul the Apostle says that we will stand before the throne of God who judges each of us, and that at that time, how we can lift our face before God if we condemn and judge others. Because of knowing good and evil, God will lead us well. Even in the unconsciousness, we never remove God from the throne of judgment and sit in that seat.

If so, instead language of condemning, slandering, criticizing, and judging, what kind of language do we speak and live our life? Let your conversation be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Col 4:6). In the grace of God, we must always speak in order to save people who are graceful and seasoned with s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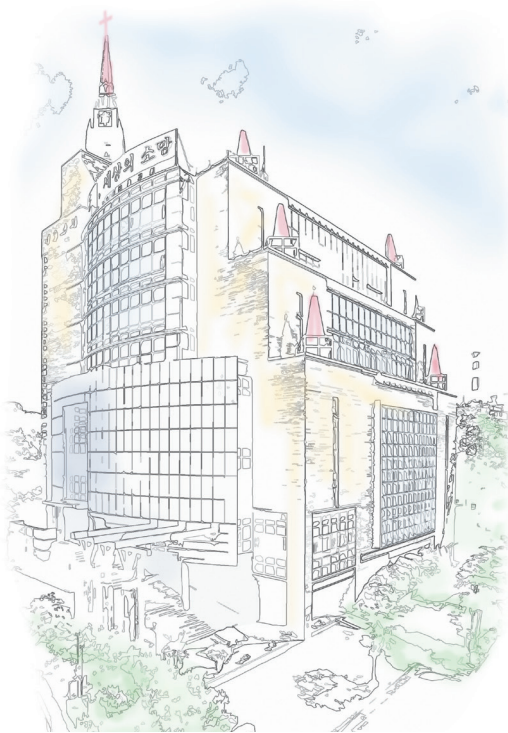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the only existence of men who are created in God’s own image, and in his likeness. Just as God’s word has the unlimitedly absolute power of freedom and change, so our word still has the healing and changing power even though our word from our mouth is relative.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our mouths, but only what is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according to their needs, that it may benefit those who listen” (Eph 4:29),

In our language life, the things we throw out are viciousness, fury, making a noise, and slandering.

By using the language that is not slandering, condemning, and judging but loving, heal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used by holy tool that God want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중에 마무리

장로 수련회: 8월 15일(월) - 아가페타운

영어예배부: 8월 26일(금)~27일(토) - 아가페타운

2016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치고 현재 8월 15일(월) 장로 수련회와 8월 26일(금)~27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열리는 영어예배부 수련회 일정만 남은 상태이다.

2016년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힘써주신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천국 시민양성에 힘써주길 바란다.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4시, 본당 /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57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세례식 신청 마감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8월 7일(주)
문답총정리: 8월 14일(주) 1, 2부 예배 후 607호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이 8월 7일(주)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문답총정리는 8월 14일(주) 1, 2부 예배

후 607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란다. 문답은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에서 있다. 문의는 607호 세례교육부로 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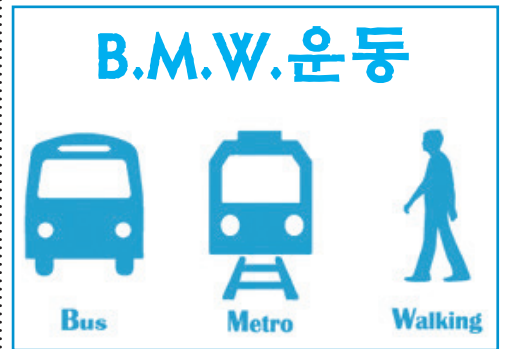


세례교육부 봉사자 모집

세례교육부에서는 세례식 사진촬영을 위해 성심으로 봉사하실 재능을 가지신 일꾼을 찾고 있다. 사진의 취미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성도로 봉사를 통해 일생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세례식 의식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하기를 소원한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나 주일 1부예배 이후부터 3부예배 전까지 607호실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다. *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 010-7743-3223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금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일날 주차하는 성도들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1. 산 제사를 드려라

유대 시대에 희생제물은 항상 죽어서 바쳤다.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한 후 그 짐승을 죽였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

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

산 제사를 드린다 함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돈도 시간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새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2. 너희 몸을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물의 성격은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몸'을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한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롬 6:13), 그리스도의 지체로(고전 6:15), 또는 성령의 전(고전 6:19)으로 말씀하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2-14).

바울 사도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바쳐야

마음은 몸과 구별해야 하겠지만 사실 마음은 몸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바쳐야 한다.

눈과 귀를 바쳐야

눈과 귀를 바친다는 것은 세속문화의 물결 속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등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혀를 바쳐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례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5-6).

손과 발을 바쳐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 우리의 손과 발이 주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자. (다음 주 계속)

수련회 후기 - 중등부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장해라 (중등부 부회장)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주제와 함께 아가페타운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길지만 짧았던 2박 3일동안 오전특강과 신나는 물놀이와 물썰매 그리고 저녁 식사후 많은 은혜를 받은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있어 중학생 때에 마지막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만큼은 저뿐만 아닌 많은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만큼 뜨거운 기도시간과 찬양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날 오후시간에는 가평 물썰매장을 가서 물썰매도 타고 작은 풀장을 가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어색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매우 신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날 오후 역시 함께 수련회를 갔던 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계곡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집회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며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닌 진심을 담아 찬양을 부르고, 많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르는 중등부의 모습에 더욱 더 뜨거운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 기도회를 가졌고,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았지만 한 친구가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만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집회시간이 더 기다려졌고, 더 찬양이 진심이 되고, 말씀이 와닿고,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주일 예배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 수련회 때에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평소에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사는 저를 되돌아 보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가는 저를 회개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수련회였습니다.



장학생선발 됨을 감사하며

어린이의 영혼을 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송채원 성도 (청년 1부)

사실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유치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유치부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그 전주에 나오지 않은 하람이가 일찍 나왔기에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람이는 저에게 자기가 오지 않은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아닌 단순히 유치부에 있는 교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저는 정말 유치부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몰라서 목사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그 내용을 받아 적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교사 회의를 하실 때 다음 주에 설교하실 말씀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유치부 찬양과 율동 교사를 맡아 예배시간에 아이들을 앞에서 인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어

수련회 후기 -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고인진 집사 (고등부 교사)

고등부 수련회가 '미래를 향한 지혜'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열심을 보여주었고, 천세종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수련회를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발부터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영적 메마름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잠언의 말씀을 천세종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과 둘째 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의 암송으로 시작된 생명의 말씀은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금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온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노철 담임 목사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특강은 다시 신앙의 기본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주현 선생님의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열정 넘치는 특강도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대석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찬양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백영자 부감님의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맛있고 건강한 간식, 놀이를 통한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 가장 적절한 타임의 물놀이 시간,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땀방울 등등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수련회는 더욱 깊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많은 고등부 학생들과 친구 청소년들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린이 사역도 하려 합니다. 저는 계속 유치부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천지 활동을 금합니다



신천지 OUT!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이민호 집사
(12교구)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날씨와 신천지 이단의 포교활동 소식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포교활동은 올 초부터 3~4명의 무리들이 교회 주변에서 CBS와 한기총의 해체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안내문을 돌리면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과 대담성이 날로 더해 가더니 지난 7월 17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한티공원에서 50여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한기총의 해체와 신천지 교리 안내문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들의 포교활동을 저지하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20~40대 젊은 청장년 집사들 중심의 모임 (사서함)의 회원들 사이에서 모여지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급하게 온라인 상으로 순찰 활동에 대한 기획과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지난 7월 31일 주일에 총 25여명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청년 성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그 첫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일에는 저희의 순찰 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가 들어

갔는지 신천지 이단의 포교활동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천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천지 이단 포교활동 저지 순찰 활동은 주일 1, 2, 3부 예배 후 교회를 중심으로 한티공원부터 은마아파트 사거리까지 3~4명 1개조로 신천지 이단의 포교 여부를 순찰하는 순찰조와 신천지 이단 교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홍보물을 교회 출입문에서 나눠주는 홍보조로 나눠서 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여 신천지 이단의 위험성을 전파할 예정이며, 지혜로우면서 강력한 순찰활동을 통해 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천지 이단 세력으로 부터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의 화합과 장로교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계기로 이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더 많은 성도 여러분의 격려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함께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호산나대학 소식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선택,

콩당콩당데이트 아카데미 2기 실시



이동귀 집사
(호산나 대학 부학장)

호산나대학의 부설기관인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소장 : 이동귀)에서 진행중인 콩당콩당 데이트 아카데미의 2기 프로그램이 6월 11일(토)부터 7월 16일(토)까지 6주간 진행되었다.

콩당콩당 데이트 아카데미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발달장애인 남녀 성인들이 참여하여, 인간관계의 이해, 건전한 이성관계, 사랑 알고하기, 성과 사랑 & 결혼, 호감을 주는 매너 및 스타일링, 대화매너 및 갈등해결, 실제 데이트 등 장애인의 바른 이성교제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콩당콩당 데이트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관한 민승기 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에게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강의를 너무 알차고 좋아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들의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를 찾고, 취업 후 단절된 또래

들과의 만남을 갖고, 특히 주말에 데이트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프로그램 참관 소감을 전했다.

1기에 이어 2기 프로그램에도 참가한 이종석 군은 "지난번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또 신청했다.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자신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매너도 익힐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동귀 소장은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연구, 실시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들의 평생복지에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 중 3쌍의 커플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데이트 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정

- 이갑진 은퇴장로 8.9 - 8.17일 카자흐스탄 세계군선교 (중앙아시아 제자훈련 강사로)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 (8.7) 바울선교회 (8.14)
- 금주의 식사 제공 : 류총기 집사 김복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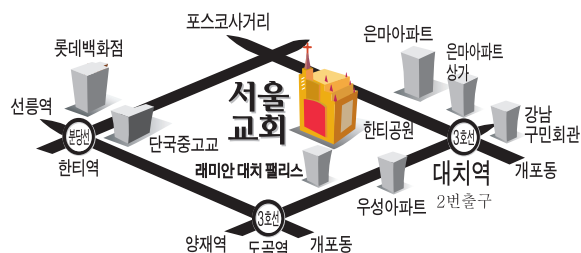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교회 장학생들이 신앙과 학업에 있어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될 수 있도록
2.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수 요 예 배 | 젊은이 예배 | 오후 2시 |
| | I 부 예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당 II, III 층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본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